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1호 【루게 제23053호】주제99 (2010)년 4월 11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도이칠란드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은 민족이 대대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를 이룩하자》를 도이칠란드 베를린 아처출판사에서 3월 27 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은 민족이 대대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를 이룩하자》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은 민족이 대대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를 이룩하자》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774호

주제 99 (2010)년 4월 7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일군들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혁명적대고조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는데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다음의 단체와 일군들에게 민족회대의 명칭인 태양전에 즈음하여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

△ 단 재

2. 8 직동청년단
희천공업대학

평양어린이시료품공장
봉학식료공장

평양상점

△ 개 별

류영섭
정길성

김영룡
김기남
김기남

송대성
송대성

김호제
김호제

김규빈
김규빈

신재완
신재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775호

주제 99 (2010)년 4월 7일

공로있는 연구사, 창작가, 일군들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예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다음의 연구사, 창작가, 일군들에게 민족회대의 명칭인 태양전에 즈음하여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허인환

류선호

송병철

홍순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존경하는 각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 기념 조선파의 친선협회준비위원회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뜻깊은 명절인 태양전에 즈음하여 에스빠냐의 파라고나에서 인터넷도서, 사진 전시회 《김일성주석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 하신다》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각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전기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조선영화, 노래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각계각층 인민들 437만 여명이 전시회개최를 열람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말씀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고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 세우신 걸출한 수령이셨습니다.

전시회개최지열람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의 로작들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삶과 투쟁의 귀중한 교과서라고 높이 칭송하였으며 최고로 《새기와 더불어》에 담겨진 풍부한 다방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사상리론가로서의 그의 친롬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상도 령도도 품도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 그대로이신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 가고있는 조선인민의 무비의 정신력의 근본바탕과 역설 뿌리가 불멸의 주체사상과 항일대전 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김정일각하는 20세기의 걸출한 수령이시였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우러르는 위인중의 위인이시였습니다.
우리는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회담의 동대이신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 기념 조선파의 친선협회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선파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

2010년 3월 31일

따라고나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1일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집회, 파당회, 회고모임,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벨기에아주제사상연구조조, 이탈리아변증법적유물론부신론자들의 조직과 《멜레암비엔네》 TV방송국, 스위스 로잔느평양문화교류센터와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인사들,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추대되심으로써 조선은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였을뿐 아니라 당당한 핵보유국, 우주강국으로서 동북아시아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선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변증법적유물론부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은 파당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현대적인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신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따라 조선인민군을 사회주의업무를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태양절과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이탈리아의 진보적인민들과 조직의 이름으로 조선인민의 앞길에 언제나 승리만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강조했다.
스위스 로잔느평양문화교류센터 책임자는 회고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은 날로 강화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에서 더욱 빛나고있다.

주석의 혁명업무를 계속하여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성대국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는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된다.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과 총서기는 회고모임에서 지난 시기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김정일주석께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사이의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는 조선혁명파 세계자주화위업을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조선의 총대》, 《강성대국의 불모지》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본사기자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선군령도업적교양사업 활발

태양절을 비롯한 뜻깊은 4월의 명절들을 계기로 각지 당조직들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선군정치의 결렬한 옹호자, 관찰자가 되어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적을 비롯한 위대성교양자료들을 가지고 시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령도업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각지 당조직들에서
다육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 가도록 하고있다.
시당위원회는 시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방송선전활동을 즐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여러 생산단위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의 기틀이신 장군님의 불변불후의 로고와 정력적인 지도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해설하여주면서 장군님의 현시말씀을 높이 받들고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적

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령도업적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2. 8비남련합기업소, 홍남비로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데 대한 내용으로 방송선전물들을 만들어 집중적인 방송선전활동을 벌려나도록 하였다.
단천지구방위총국 당위원회

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업적 교양사업을 단천지구 의 공장, 기업소들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 교양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장군님의 현시말씀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돌격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위원회, 자강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 선군정치의 본질과 그 정당성, 생활력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적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양자료를 통한 선군령도업적교양을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도안의 시, 군,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감에 대한 내용의 해설당양 자료를 가지고 대고조진군으로 들끓는 전투장마에 내리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해설하여 주어 혁신과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이밖에도 함경북도당위원회, 황해북도당위원회, 평안남도당위원회, 자강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선군정치의 본질과 그 정당성, 생활력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적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양자료를 통한 선군령도업적교양을 벌려나가도록

영원한 태양의 꽃

◇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제12차 김일성화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수만상의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 다들 펼치게 될 이번 축전은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열대의 섬나라에서 진귀한 꽃으로 피어나 김일성화로 명명된 때로부터 어언 45년, 이력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애도의 마음들은 얼마나 뜨거웠었이었던가. 세종의 물려보낸 갖가지 희귀한 꽃들을 펼쳐보인 화초전시회나 화초박람회에는 많았어도 김일성화축전처럼 한가지 꽃을 가지고 온 축전장을 화회의 꽃마대로 장식하는 꽃축전은 있어본적이 없다.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나고 우리 인민의 총성으로 만발하는 불멸의 꽃이기에 김일성화가 그토록 아름다운것이다.
◇ 김일성화는 주체의 해발로 온 누리를 밝히는 위대한 태양의 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화는 나라의 국보이며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예로부터 꽃은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와 축원의 상징으로 되어왔다. 꽃은 그 형태와 특징에 따라 이름을 단것도 있고 원예학자나 식물

재적자의 이름으로 불리운 꽃도 있다. 그러나 인류역사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같이 집체의 위인에 대한 만민의 흥조의 열기에 떠받들려 온 세상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은 없었다.
그렇다. 김일성화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 꽃이 아니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히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 위인칭송의 꽃이 바로 김일성화이다. 이 불멸의 꽃과 더불어 수령님을 안고사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한다.
◇ 김일성화를 심장속에 간직하고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 것이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각지에 수많은 김일성화재배농사들을 일떠세우고 태양의 꽃을 피우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흠모심과 절절한 그리움의 분출이다.
우리는 김일성화축전을 성대하고 의의있게 진행하여 민족회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장식하며 이번 축전을 통하여 조국과 혁명,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 올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은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념원이다. 우리는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주석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일터마다에서 더 큰 위훈을 창조해야 한다.

본사기자

금수산기념궁전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더욱 훌륭히 꾸리려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그 주변에 많은 나무들과 꽃판목들을 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백태이고 천연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더 잘 꾸리기 위해 펼쳐나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사무국 일군들은 올해 봄철에 들어와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받들려는 고결한 정성의 마음을 안고 지난 시기에 많은 나무와 꽃판목들을 심고 가꾸어는 이들은 올해에도 금수산기념궁전주변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서고있다.
국가영화위원회, 케신성을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자기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인의 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의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받들려는 고결한 정성의 마음을 안고 지난 시기에 많은 나무와 꽃판목들을 심고 가꾸어는 이들은 올해에도 금수산기념궁전주변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서고있다.
국가영화위원회, 케신성을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자기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인의 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을 이곳에 심었다. 평양시인의 기관,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측백나무, 수삼나무, 은행나무 등 많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평안남도인의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뜨거운 마음을 안고 양묘장에서 정성껏 키워낸 참성기갈나무, 전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나무들을 절적으로 심어 금수산기념궁전주변의 풍치를 더욱 돋구는데 이바지하였다.
해마다 금수산기념궁전주변에 지성어린 나무들을 심어온 고산군의약품관리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정성껏 심어온 많은 진귀한 나무들을 심었다.
본사기자 윤용호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조국을 휘황한 미래로 이끌며 더욱 찬란히 빛나리

본사기자 김충훈 찍음

시 료 음 수 령 님 념 원 이 꽃 피 는 강 산

수령님 세월이 흐른다

김 석 주

꽃속에 묻힌 만경대고향집
사람들의 물결 끝없이 흘러드는
이 추녀아래로
어느덧 사연많은 한세기가 흐르는가

이 고향집사립문에서
강성대국의 대문
거기엔 장구한 세월이 놓여있구나
세기와 더불어
빛나는 내 조국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수령님의 100년세월이

천줄기 만줄기 끊이지는 환희의 물결
더 거세차게
더 풍만하게
더 아름답게 흘러흐르며
이 땅에 사회주의무공도원을 끝없이
펼쳐가는
영광 빛나는 수령님 세월이어

찾아주고 지켜주고 빛내어주시 조국
태양의 품에서 꽃들이 피고 초목
이 무성하듯
이 땅의 모든것
수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수령님뜻으로 번영하는 나의 조국이여

그 세월을 거슬러 더듬으며
더더욱 깊어지는 내 마음
봄은 어디서...
조국은 어디서...

멀고먼 그 시절 우리 수령님
만경봉부지개에 펼쳐지던 그 꿈
대동강물결에 실으시던 그 뜻은
꽃이 피어 지지 않는 영원한 봄나라
인민이 만복을 누리며 살 아를
다른 강산

그 꿈 그 뜻을 안고
백두산을 향해 결연히 열고 나서신
고향집사립문이
오늘은 강대한 국력을 떨치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열려있구나

얼마나 존엄하고 강고한 세월이었
던가
수령님 해쳐오신 그 길우엔
백두의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전화의 불비가 쏟아져내렸다

빈터우에서
다시 제대미우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초행길에서
첫삽을 뜨고 첫걸음을 떼시며
꽃피는 봄을 안고 부강조국을
안고 오신
기나긴 세월

수령님의 그 세월이
거창한 대하라면
수령님의 시원을 두고
백두의 산발과 계곡을 누비며
오늘에도 오늘에도 즐거차게 흘러
온 대하!

도도히 격류하는 그 흐름에
오늘은 우리 장군님 더해주시
주체철의 폭포를 안으며
비날론의 꽃물결을 합치며
설레이는 금나락의 파도를 떠밀으며

흥하는 이 땅 4월의 봄빛 눈부시다
수령님 한평생영원함을
우리 장군님
가장 빛나게 꽃피우시어
불멸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내 나라

푸른 하늘엔 우리의 위성이 날고
강줄기마다 일떠서는 산악같은 대
연체들
이 땅의 한끝까지 눈부실 행복의
불야성...

땅과 우리 수령님

변 홍 영

복반은 대지 꽃피는 땅
따스한 봄빛 넘친
4월의 들길에 서니
더더욱 가슴에 사무쳐오는
어비이수령님 생각

땅이여
너는 무엇이어서
우리 수령님
너와 한평생 정을 나누며
너의 풍요한 이 땅우에
안고 오신
기나긴 세월

세상일 나라일 하찮으셨건만
축원의 꽃물결 설레이는
4월의 봄명절에조차
세백이슬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셨더니

서해천리 곡창벌을 찾아
먼 초초의 솟날에 새겨가신 그 자욱
먼 산촌의 다락밭에 이어가시며
눈비오는 이 나라의 사계절
벌에서 다 맛보내신 우리 수령님
그 어디더냐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아름다운
봄나라
후손만대 만복을 누리며 무공도원이여

이제 금빛문패를 높이 단
강성대국 큰집의 추녀아래
홍성이며 넘치리 넘쳐흐르리
세상 부림없는 행복환 인민의 웃
음소리
풍요한 오곡백과 무르익어 설레이
는 소리
사회주의승리의 만세소리가

진정 화창한 이 봄은 어디서...
진정 강대한 조국은 어디서...
세상만물에 태어난 시원과 원천이
있듯이
내 나라 봄에도 고향이 있고
내 나라 강성대국도 고향집이 있구나

아, 1912년 4월 15일!
아득한 세기의 시작점 그 해들이
지겹게
고향집이
강성대국을 안고 서있지 않았던가

만경대고향집은
백화만발하는 태양의 불을 안고
영원무궁 서있으리
세기와 세기들을 향해 사립문을
열어놓고...

그 소원에 실일이 은실금실을 잊고
인민의 천만리상이 꽃피는
락원의 이 땅 이 하늘아래
오늘은 만복의 무지개로 드리운
비날론아

너는 눈보라 울부짖는 밀린의 긴긴 밤
만경대고향집 어머니의 유산으로
마안산이들을 품어안던
수령님의 그 사랑이었다

전후의 그 나날
비날론시제품을 손에 드시고
인민의 행복을 그려보시던

오, 주체철이여!

리 연 희

이글거리는 해를 철의 가슴에 안
은듯
성강의 하늘에 펼치는 장쾌한 불
노을
동해의 세찬 파도인듯
쇠물이 녹는다 주체철이 사용된다

《김일성훈장》
태양의 빛나는 이름을 지니고
쇠물폭포를 터치며 불보라를 날
리는

땅이어서
한평생 이 땅을 소중히 떠안고 사시
였구나

화창한 이 봄날의 들길에서
내 가슴벅차도록 새겨야노니
오곡백과 주렁지는 사회주의무공
도원에서
같이 이 날처럼 인민의 행복이

만복의 꽃비단, 비날론아

리 명 옥

수령님의 웃음이었다
못 잊을 4월의 봄날
새운 입은 아이들의 모습 한장 또
한장
사진에 담으시던 수령님의 기쁨이
었다

이 땅에 굽이치며 흘러흐르는
비날론아
너의 천만오리를
풀고 이어 늘이고늘인데도
인민을 위해
수령님 해쳐오신 헌신의 수억만리
그 길의 한끝에 다 닿지 못하리니

오, 비날론
너를 어찌 돌에서 나온 실이라 하라
너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둘어에도 꽃을 피울
수령님의 불같은 그 심장에서 태
어나
장군님품에서 두번다시 피어난
내 나라의 꽃비단

만경대고향집 추녀아래 한식술을
이룬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포근히 감싸
안으며
금수강산 이 땅을 휘감으며
아, 끝없이 굽이치며 흐르라
내 나라 만복의 꽃비단 비날론,
비날론아

산소용용료와 정령로
지심을 혼드는 너의 동을속에
이 가슴도 끓여 사름치누나

쇠물을 끓여오도 우리의것으로!
강철을 부어내도 우리의 지혜,
우리 힘으로!
수령님의 애국의 뜻으로
로의 승물을 버치다
그이의 크나큰 심장의 박동이
뜨겁게 뉘어져 쇠물은 붉고붉다

오, 주체철이여!

리 연 희

이글거리는 해를 철의 가슴에 안
은듯
성강의 하늘에 펼치는 장쾌한 불
노을
동해의 세찬 파도인듯
쇠물이 녹는다 주체철이 사용된다

《김일성훈장》
태양의 빛나는 이름을 지니고
쇠물폭포를 터치며 불보라를 날
리는

우리 수령님 한평생의 천하지대본이
였구나

수령님의 그 천하지대본을
우리 장군님
자신의 천하지대본으로 안으시고
가없이 펼쳐가시는 선군시대의 옥도별
아, 수령님의 미소 더 밝고 눈부신
복반은 대지 꽃피는 땅이여

만복의 꽃비단, 비날론아

리 명 옥

수령님의 웃음이었다
못 잊을 4월의 봄날
새운 입은 아이들의 모습 한장 또
한장
사진에 담으시던 수령님의 기쁨이
었다

이 땅에 굽이치며 흘러흐르는
비날론아
너의 천만오리를
풀고 이어 늘이고늘인데도
인민을 위해
수령님 해쳐오신 헌신의 수억만리
그 길의 한끝에 다 닿지 못하리니

오, 비날론
너를 어찌 돌에서 나온 실이라 하라
너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둘어에도 꽃을 피울
수령님의 불같은 그 심장에서 태
어나
장군님품에서 두번다시 피어난
내 나라의 꽃비단

만경대고향집 추녀아래 한식술을
이룬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포근히 감싸
안으며
금수강산 이 땅을 휘감으며
아, 끝없이 굽이치며 흐르라
내 나라 만복의 꽃비단 비날론,
비날론아

산소용용료와 정령로
지심을 혼드는 너의 동을속에
이 가슴도 끓여 사름치누나

쇠물을 끓여오도 우리의것으로!
강철을 부어내도 우리의 지혜,
우리 힘으로!
수령님의 애국의 뜻으로
로의 승물을 버치다
그이의 크나큰 심장의 박동이
뜨겁게 뉘어져 쇠물은 붉고붉다

오, 주체철이여!

리 연 희

이글거리는 해를 철의 가슴에 안
은듯
성강의 하늘에 펼치는 장쾌한 불
노을
동해의 세찬 파도인듯
쇠물이 녹는다 주체철이 사용된다

《김일성훈장》
태양의 빛나는 이름을 지니고
쇠물폭포를 터치며 불보라를 날
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체철을 해야 한다고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넋을 주며
수령님 수십년세월 안고사신 철
그 뜻을 이어 우리 장군님
애국의 열도로 끓여온 주체철

그래서
너의 쇠물 그리도 아름다운것이나
너의 동을 노래마냥 벅찬것이나
내 이글거리는 쇠물을
하늘높이 떠받들어올리며
세상에 웨치고싶어라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철이라고

크나큰 우리 집

박 해 출

그 쇠물폭포로
원수들의 봉쇄와 제재의 사슬을
깃부셔버리고
이 땅을 딛고 거연히 솟은 장한 그
모습
주체의 진리를
은 누리며 철의 불보라로 휘뿌리
는 강철의 봉화여

봄빛이 질어가는 만수대기습
수령님 손길높이 서계시는
이 언덕아래
내 사는 만수대거리가 있어라

아직마다 봄꽃을 피워안고
설레이는 가로수들
눈부신 은빛창문들이 봄을 향해
열리는 소리
해살이 쏟아지는 푸른 지방아래
아이들의 정 맑은 노래소리

4월의 이 아침 뜨거워지는 생각
어비이수령님
행복한 인민의 웃음소리 더 가까
이 들으시라
우리 장군님 만수대언덕아래 세워
주신
강성대국의 리상거리여

금지 이제라도 우리 수령님
한평생 영원이 꽃핀 이 거리를
지나
대동강가에 희한한 새 파원
미풍벌의 살구동네 추리동네마을
들을
기쁨속에 다 거니실듯

한평생 인민의 집을 찾고찾으신
어비이의 그 길엔
멀고 가까운 길이 따로 있었던가
찬이눈 눈비에 옷자락 마를새
없이

크나큰 우리 집

박 해 출

그 쇠물폭포로
원수들의 봉쇄와 제재의 사슬을
깃부셔버리고
이 땅을 딛고 거연히 솟은 장한 그
모습
주체의 진리를
은 누리며 철의 불보라로 휘뿌리
는 강철의 봉화여

너는 우리 수령님의 신념과 의지
의 산악
너는 우리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
의 결정체
우리의 손 우리의 힘으로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영웅조선의 철의 기둥비여

너의 거센 숨결 한번 내어 뿜
으면
주체철이 폭주쳐 쏟아지는 소리
달아오른 철의 가슴을 터치면
이 땅우에 기계폭포, 쌀폭포
인민의 행복이 만복으로 굽이쳐
흐르는 소리

한평생 애국으로 불태우신
우리 수령님의 심장의 불을 안고
사름쳐 끓는 주체철이여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김일성훈장》
로의 앞가슴에 번적이여
아, 태양의 빛발을 안고 붉은 쇠
물이 굽이친다

바라보면
만수대기습에서 조국방 한끝까지
장군님 가꾸시는 락원의 이 강
산은
수령님 사랑으로 주추들을 놓고
수령님 념원으로 추너를 펼친
행복의 무공도원 크나큰 인민
의 집!

정령 살고있었구나
4월의 봄빛 찬란한
그 한추리 한지방아래서
내가 살고 인민이 살고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복락할
강성대국
아, 수령님의 품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집이여

바라보면
만수대기습에서 조국방 한끝까지
장군님 가꾸시는 락원의 이 강
산은
수령님 사랑으로 주추들을 놓고
수령님 념원으로 추너를 펼친
행복의 무공도원 크나큰 인민
의 집!

정령 살고있었구나
4월의 봄빛 찬란한
그 한추리 한지방아래서
내가 살고 인민이 살고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복락할
강성대국
아, 수령님의 품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집이여

바라보면
만수대기습에서 조국방 한끝까지
장군님 가꾸시는 락원의 이 강
산은
수령님 사랑으로 주추들을 놓고
수령님 념원으로 추너를 펼친
행복의 무공도원 크나큰 인민
의 집!

정령 살고있었구나
4월의 봄빛 찬란한
그 한추리 한지방아래서
내가 살고 인민이 살고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복락할
강성대국
아, 수령님의 품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집이여

크나큰 우리 집

박 해 출

그 쇠물폭포로
원수들의 봉쇄와 제재의 사슬을
깃부셔버리고
이 땅을 딛고 거연히 솟은 장한 그
모습
주체의 진리를
은 누리며 철의 불보라로 휘뿌리
는 강철의 봉화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평양 4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동상을 찾아 10일 제일본
조선인대표단, 제일동포조국

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
였다.
대표단, 방문단성원들은 나
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합
없는 흥모의 마음을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
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기록영화

《한평생 인민들속에서》(5) 상영

【평양 4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태양절을 맞으며 기록
영화 《한평생 인민들속에서》
(5)가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상영되었다.

국가간부들, 우당위원장장
성, 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
내 근로자들이 영화를 관람하
였다.

인민들과 담화도 하고 회의도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청산리정
신, 청산리방범을 창조하신 력
사의 나날들이 영화에 수록되
어있다.

대인의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며 사회주의제
도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경제
관리체계를 창조하기 위해 바
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사적을 전하는 장면들은 관람
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본의 원칙으로 전지하시고 세
로운 높은 단계에서 구현해나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
지도강행군길을 따라 일심단결
의 위력이 분출되고 조국방우
에 어비이수령님의 력사가 영
원히 흐르고있다는 철리를 새
겨주는 영화의 장면들은 관람
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
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영화를 통
하여 인민의 리상이 실현된 강
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
리 오늘도 애국헌신의 장성을
좁입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
들고 고위대한 수령님식대로 혁
명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당
창건 65돌이 되는 올해를
김일성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번영의 해로 빛내일 철석의 의
지를 가다듬었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념위전을 좌
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
민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걸
고걸으시며 독창적인 대중지도
사상과 방법을 창조하시고 그
것을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
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
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른 새벽 농민들의 가정을
찾으러 생황형편을 세심히
알아보는것으로부터 현지도
를 시작하신 어비이수령님께서

인민들과 담화도 하고 회의도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청산리정
신, 청산리방범을 창조하신 력
사의 나날들이 영화에 수록되
어있다.

대인의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며 사회주의제
도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경제
관리체계를 창조하기 위해 바
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사적을 전하는 장면들은 관람
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화는 어비이수령님께서 일
꾼들이 당의 군로선전에 철저
히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이
끌어주시고 곤민들의 인민들의
생활을 친언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을뿐아
니라 원아들과 유가족들에게 온
갖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료들
을 편집하고있다.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절대불

본의 원칙으로 전지하시고 세
로운 높은 단계에서 구현해나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
지도강행군길을 따라 일심단결
의 위력이 분출되고 조국방우
에 어비이수령님의 력사가 영
원히 흐르고있다는 철리를 새
겨주는 영화의 장면들은 관람
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
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영화를 통
하여 인민의 리상이 실현된 강
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
리 오늘도 애국헌신의 장성을
좁입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
들고 고위대한 수령님식대로 혁
명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당
창건 65돌이 되는 올해를
김일성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번영의 해로 빛내일 철석의 의
지를 가다듬었다.



어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정성껏
피워가고있다. —사회과학원 《김일성화김일성영화은실》에서—

누리에 울려가라, 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송가여

어비이수령님 이야기로 잠 못
드는 내 조국의 4월, 온갖 꽃
다투어 땅울러치고 따사로운
태양이 빛발을 한껏 뿌려주는
선군조선의 4월이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산에 메어리치고 장군님 찾으시
는 일터마다 수령님의 노래는 더
뜨겁게 울려퍼져지 않았던가.
우리 조국청사가 없었나
우리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해로 기록된 지난 한해동안에
만도 함경남도예술단, 강원도
예술단, 황해북도예술단을 공
로한 여러 예술단체들의 공연
을 몸소 보아주시고 현지도의
그처럼 바쁘신 길에서 2.8
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
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예
술소공연도 보아주시며 그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주도의 화려
한 극장무대에서 선군시대 로
동계급의 새 문화를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도록 하여주시
우리 장군님입니다.

《수령님의 유홍의 뜻이 꽃
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
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
습니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한해도 저물어가는 11월의
어느날에는 김종태전기기관차
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
업소, 담배련합기업소의 기
동예술선동대원들과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 예술소원들의 공
연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우리
의 영웅적으로동계급은 장구하고
도 강고한 투쟁행위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
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대오로,
반제자주적련합이 투철하고 사
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
가는 혁명의 핵심부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믿음직한 로동
계급이 부강조국건설의 전초선
을 굳건히 지켜주시기에 강성

어비이수령님 이야기로 잠 못
드는 내 조국의 4월, 온갖 꽃
다투어 땅울러치고 따사로운
태양이 빛발을 한껏 뿌려주는
선군조선의 4월이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한해도 저물어가는 11월의
어느날에는 김종태전기기관차
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
업소, 담배련합기업소의 기
동예술선동대원들과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 예술소원들의 공
연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우리
의 영웅적으로동계급은 장구하고
도 강고한 투쟁행위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
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대오로,
반제자주적련합이 투철하고 사
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
가는 혁명의 핵심부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믿음직한 로동
계급이 부강조국건설의 전초선
을 굳건히 지켜주시기에 강성

어비이수령님 이야기로 잠 못
드는 내 조국의 4월, 온갖 꽃
다투어 땅울러치고 따사로운
태양이 빛발을 한껏 뿌려주는
선군조선의 4월이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한해도 저물어가는 11월의
어느날에는 김종태전기기관차
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
업소, 담배련합기업소의 기
동예술선동대원들과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 예술소원들의 공
연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우리
의 영웅적으로동계급은 장구하고
도 강고한 투쟁행위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
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대오로,
반제자주적련합이 투철하고 사
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
가는 혁명의 핵심부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믿음직한 로동
계급이 부강조국건설의 전초선
을 굳건히 지켜주시기에 강성

날로 악랄해지는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가 단호한 조치를 예고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단장 남측에 통지문 발송

【평양 4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단장은 이와 관련하여
10일 남측군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
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군부초전
분자들과 최근 피퇴당국자들을
비롯한 역적배당은 동족사이
에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
고 북남관계를 대결과 충돌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이 여기에 비끼고 수령님노래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천만아
들딸들의 철석의 맹세가 맥맥
히 굽이친다.

북침전쟁책동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무모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북로전투와 같이 지난 3월 남조선 군부조전장들은 미제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과 대규모 침략을 골자로 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더한층 증대시켰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최첨단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전진배치하는 등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선제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에 그 어느때 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얼마전 남조선전력자는 군부조전장들에게 그 무슨 《만전의 대비태세 확립》에 대해 떠들며 전쟁열기를 고취 하였으며 그 졸개들도 잊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며 위협한 전쟁당면들을 당당 내뿜고 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세당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해대의 온 겨레의 치욕은 격분할 자재이고 있다.

남조선전력세력의 악랄한 북침전쟁책동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보수세력들은 집권하여 외세의 《선제공격》나발을 그대로 본받 《비핵, 개방, 3 0 0》이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좋게 말하면 북남관계를 삼시에 대결의 극한점에 도달시켰다. 그들은 북남관계발전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관계확립》을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친미시대와 동족대결에 골몰이 되어 날뛰었으며 외세의 핵전쟁미수준이 되어 반공화국전쟁책동에 극성을 부렸다. 지난 세

월의 북침전쟁연습과정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고있는것이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사상 최대규모에서 진행된것 그리고 북침작전계획들이 보다 공격적이며 위험한 내용으로 수정보충되고있는것 등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보수당국의 범죄적기도가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날같이 보여주고 있다.

반역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더욱 짙어가고있으며 북남관계는 예측할수 없는 파국에 도달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운명을 심각히 위협하고있으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정착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나라의 분열로 인한 민족적분열을 가시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은 온 민족이 단합하여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 길뿐이다. 평화적통일은 조국통일위업의 본성적요구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민족내부의 모순이나 갈등으로 하여 산생된것이 아니라 외세의 대조선지배야말로로부터 비롯된 인위적인 분열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놓고 한파를 이은 동족끼리 대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제도차이와 힘의 차이도 결코 대결의 조건으로 볼수 없다. 외세의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자면 반드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외세의 민족분열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면서 대화와 평화의 방법으로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가기 한다.

우리 겨레는 누구나 나라의 평화와 통일정착을 갈망하고있다. 지난 세기 중엽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파괴될수 없는 참화를 겪고 60여년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전쟁위협에 시달려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남조선전력세력이 겨레의 강렬한 평화통일지향에 도전하여 한사코 북침전쟁의 길로 돌출하고있는것은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핵전쟁제물로 통째로 삼겨버지는 최악의 민족반역행위로 추호도 포락할수 없다.

남조선전력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당동이다.

보수세당의 북침전쟁책동은 골수에 배긴 《홍수통일》, 세태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악랄한 기도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그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공공연희 제창하고 그 무슨 《급변시대》에 대해 떠들면서 우리의 존엄을 제쳐두고 무력으로 해치기 위해 치밀날뛰고있다. 파괴들의 망언은 남조선의 역대 반공외파장자들이 떠들던 《승공통일》론의 재현이다. 남조선의 현 전권세력이 온 민족의 자주와 규판을 받고 스펀기에 처박힌 력사의 오물을 다시 꺼내들고 대결전쟁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는 것은 6. 15 통일시대의 진전을 가로막고 과거의 대결시대를 되살림으로써 꺼져가는 진명을 부지하기 위한 낡은 세력의 악랄한 도전이다.

오늘의 시대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이 내세워 되고있는 6. 15 통일시대이다. 6. 15 통일시대의 탄생과 진전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우리 겨레의 장구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성과로서 여기에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겨

레의 강렬한 지향이 구현되어있다. 6. 15 통일시대는 온 겨레가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자주통일의 시대, 화해와 단합으로 풀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적화합의 시대, 평화통일의 시대이다.

은 겨레는 6. 15 공동선언의 채택과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를 높이 들고 대결과 반목을 거듭하던 과거시대에 중저부를 적으며 북남관계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돌출시켰다.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의 발표이후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민족사적인 사변들과 겨레를 기쁘게 한 통일운동성과들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이 겨레의 간절한 념원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지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세당의 대결전쟁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도 민족적화합과 협력,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고 울려나오고있는 현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지향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거스를수 없다.

지금 반통일보수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 력사의 패잔병들의 단말마작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전쟁책동이 저들의 무덤을 파는 이리 석은 자멸행위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당장 접어치워야 한다.

은 정 철

온 민족이 련대연합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 성명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발표 17돌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로씨야고련연)가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기초, 원칙과 방도가 집약적으로 명시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분열된 조국의 현실과 경제 조선민족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통일조국의 앞날까지 내다본 가장 광명정대한 조국통일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기초, 원칙과 방도가 집약적으로 명시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기초, 원칙과 방도가 집약적으로 명시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기초, 원칙과 방도가 집약적으로 명시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로조활동에 대한 탄압에 항거

청년연대도 지난 3월 24일

문명을 발표하여 청년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는 당국의 처사를 단죄하였다. 문명은 《로동부》가 청년로조설립신고에 대해 거부하였을 《정치활동이 주되는 목적》이라는, 《구직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하니 하며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청년로조는 청년들의 실업, 로동권익의 해탈과 사회의 민주화, 조선반도평화실현을 기본활동목적으로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문명은 청년로조의 설립과 활동을 지지하며 각계 민중과 함께 청년들의 권리실현을 위해 반대투쟁을 벌려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남조선에서 로조단체들이 파산당국의 무분별한 폭압책동에 응징할 단죄구판하면서 이에 맞서 견결히 투쟁할 의지를 과시하고있다. 남조선의 운수로조위원장들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민주로총사무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 당국이 각종 파쇼악법들을 개악하고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수단을 동원하여 정보세력을 탄압하고있다고 규탄하면서 운수로조가 공무원들, 《전교조》, 건설로조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극심한 탄압을 받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국이 운수로조에 화를편대해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로조를 없애버리려고 독압에 광분하고있을뿐아니라 운수부처 로동자들의 생존권보장요구까지 외면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민주화쟁취, 로조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조원들의 단결된 힘이 있고 필승의 각오가 있는 한 반드시 이길것이라는 확신을 표지하면서 자신들이 파쇼당국의 로조말살정책을 반대하는 전민적인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북측본부 성명 발표

반대하여 6. 15의 가치를

반대하여 6. 15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기 위해 강조하였다. 각계 민중이 미군철수, 사대미국세력산투쟁을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굳게 뭉쳐 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서자고 성명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성황리에 진행된 4월의 명절로리축전

한 일군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이런 축전에 참가한 그 어느 단체에서나 자기 단위에 실리적효과를 올릴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전시한것으로 하여 이번 축전은 보다 현실적이며 이채로운 축전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참가단위들에서 로리의 과학화, 표준화, 접대책의 예술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탐구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였다. 장광봉사관리국에서 전시한 수십가지의 건강보양음료들과 로리들의 열광에도, 명절로리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영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황도식 재일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일군들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한편 이날 안중직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직위원회도 비행기 도착 평양에 도착하였다.

새로조선공민중양협회 부회장

김경렬 새로조선공민중양협회 부회장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친 신 경애하는 수령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위원회 부회장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